의학정보관리 제 38 권 제 1, 2 호 2011

Merck Manual 1세기(100년)의 역사: 의학정보 제공의 역사

(사)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김 종 회

History of the Merck Manual's One Century: History of Medical Information Supply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Seoul, Korea

Chong-Hwae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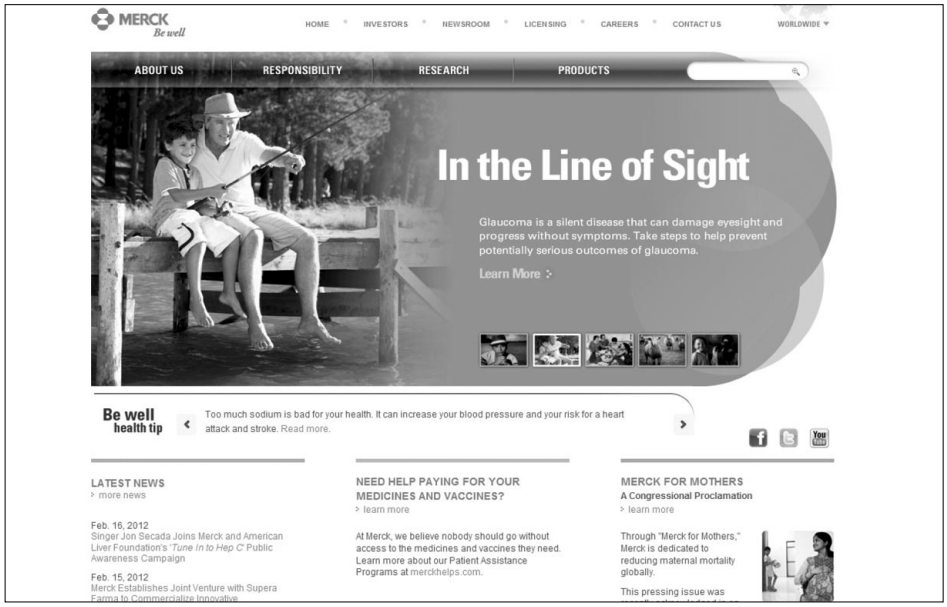
▶▷ ABSTRAC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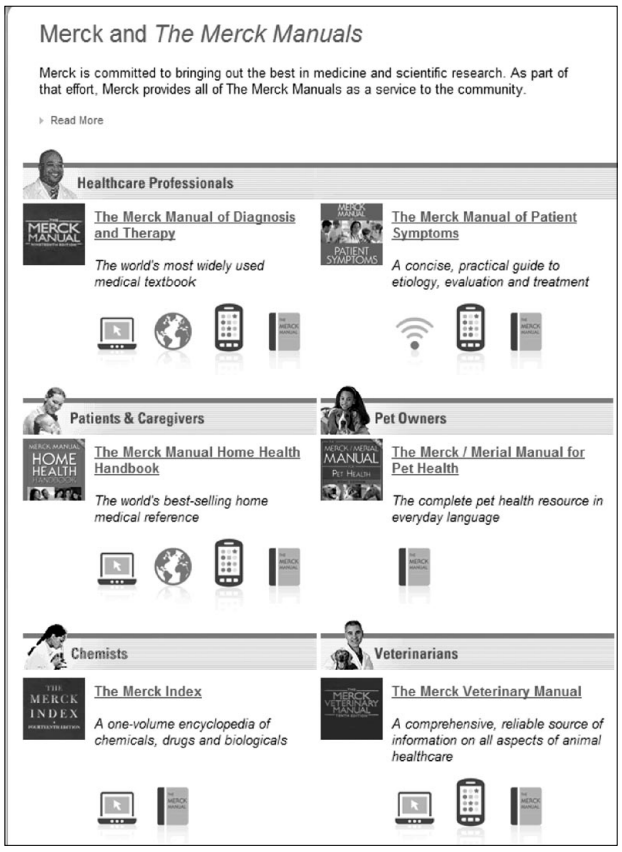
In 1899, the American drug manufacturer Merck & Co. first published a small book titled Merck's Manual of the Materia Medica. It was meant as an aid to physicians and pharmacists, reminding doctors that "Memory is treacherous." By the 1980s, the book had become the world's largest selling medical text and was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languages. In 1990, the editors of The Merck Manual introduced The Merck Manual of Geriatrics. This new book quickly became the best-selling textbook of geriatric medicine, providing specific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care of older people. In 1997, The Merck Manual of Medical Information-Home Edition was published. In this revolutionary book, the editors translated the complex medical information in The Merck Manual into plain language, producing a book meant for all those people interested in medical care who did not have a medical degree. The Merck Manual of Health & Aging, published in 2004, continued Merck's commitment to education and geriatric care, providing information on aging and the care of older people in words understandable by the lay public. The world's most widely used medical reference now features expanded clinical focus on each category of disorder, as well as more specific guidance on patient examinations.

Key Words: Children's health, Diagnosis and therapy, Genetics, Geriatirics, Gynecology, Health & aging, Manual for pet health, Medical guide, Medical information, Obstetrics, Patient symptom, Pediatrics, Physician reference, Veterinary manual

서 론

1899년 미국의 제약기업 Merck사는 Merck's Manual of the Materia Medica라는 192p.의 작은 책자를 출판하였다. 애매한 기억을 재확인 할 때, 의사나 약제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폭 넓은 분야를 수록 하였으며 Compact해서 사용하기 편하고 가격도 비싸지 않다. 후에 The Merck Manual이라고 알려진 이 책은, 의료에 종사하는 분





이나 의학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호평을 받게 되었다. 그 알버트 슈바이쳐(Albert Schweitzer)도 1913년 아프리카에 이 책을 가지고 갔다.

1980년대까지 이 책은 세계에서 더욱 많이 읽히는 의학텍스트로 되어 12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근래 출판된 책은 17개국의 언어로 번역 되었으며, 면수는 1968p.임). 장기간 동안에 모회사(母會社)의 이름은 다소 변경되었으나 책 이름은 변하지 않았으며, 공식으로는 Merck Manual 진단과 치료(The Merck Manual of Diagnosis and Therapy) 이지만, 평상시에는 단순히 Merck's Manual, 때로는 The Merck 라고 불리고 있다. 초판부터 최신판까지 일관해서 미국 Merck사는 비영리사업으로 출판활동을 해 왔으며, 가급적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는 가격을 유지토록 노력해 왔다.

1990년 Merck Manual 편집팀은 고령자의료 머크 메뉴얼(The Merck Manual of Geriatrics)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새로운 책은 곧 고령자의료의 교과서(Text)로서 널리 읽히게 되었으며, 고령(高齡)과 더불어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하여 폭넓은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고령자의료 머크 매뉴얼 제3판은 5개국 언어로 출판되었다. 머크사가 이러한 서적을 제작하고 출판을 계속하는 것은, 고령자의료를 Global화하여 잘 해나가려는 의지와, 고령화사회에 공헌하려는 결의의 표명이기도 하다.

1997년에는 머크 매뉴얼 의학정보 가정 판(The Merck Manual of Medical Information-Home Edition)이 출판되었다. 이 혁신적인 책을 편집 팀은 머크 매뉴얼 원문의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일반적인 말로 바꿨으므로,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않아도 의료에 관심이 있는 분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집을 다시 했다. 가정 판은 칭찬을 받으며 발행부수는 200만부를 초과했다.

그 최신 가정 판(원저 제2판)은 2003년에 간행되어 의학지식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폭넓게 망라하면서 적은 비용 부담으로 모든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머크사의 자세가 계속되고 있다.

2004년에 출판된 고령자의료 머크 매뉴얼 가정 판(The Merck Manual of Health and Aging)은, 고령자의료에 관한 머크사의 계속적인 교육 및 계몽활동으로서, 전문가 이외의 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말로 고령자 특유의 건강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머크사는 또 머크 인덱스(The Merck Index)를 통해, 연구자에 한정되지 않고 화합물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다. 초판은 1889년에 실은 머크 매뉴얼의 출판보다 앞섰으며, 이 종류의 텍스트로서는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다. 머크 수의(獸醫) 매뉴얼(The Merck Veterinary Manual)은, 1955년에 최초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동물의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탁월한 텍스트로 되었다. 미국 머크사는 세계최대규모의 제약기업중 하나이다. 머크사는 의료 및 의약품 분야에서 더욱 우수한 성과를 내려는 결의를 가지고 착수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모든 머크 매뉴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공헌사업으로 계속해 온 긍지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The Merck Manual, The Merck Manual of Geriatrics, The Merck Veterinary Manual에 대해서는, 머크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merck.com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Merck Manual 일(1) 세기의 역사

과거 100년간에 의학정보, 기술, 진단 그리고 치료는 놀랄 정도로 그리고 도전적이고 가속하는 속도로 진보하고 있다. 머크 매뉴얼(The Merck Manual)은 항상 최선의 임상실천을 소개하는데 노력해 왔다. 금세기 판 발행에 있어서 과거의 판을 도리켜 보고, 금세기의 의료의 변화를 영어로 기술한 가장 역사가 있는 종합의학교과서인 이 책의 발전을 축하하고 싶다.

1899년에 약물학의 머크 매뉴얼(The Merck's Manual of Materia Madica)이라는 서명으로 출판된 제1판은, 미국약국방(The United States Pharmacopoeia)에 따른 192p.의 책이었다. 제1부「약물학」에서는 당시 치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약품을(강장제인 Absinthin에서 진통약 Valerian Zinc까지) 알파벳순으로 열거하고, 각 약물의 성질과 투여량을 기재하였다. 제2부「치료의 적응」에서는 증상, 징후, 장해 및 질병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하여, 각 항목에 대해 당시 알려져 있던 여러 가지 치료법과 사용법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기재하였다. 제3부에서는 약물은「생리학적 작용」에 의해 분류되어, "Alternatives" "Amenogogues" "Discutient" "Resolvents"라는 것으로, 오늘날 이미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Galenus까지 소급해야할 몇 가지의 Category를 포함하고 있었다. 기재된 약물의 대부분은 보다 효과적인 성분으로 바뀌었으나, Atropine, Digitalis, Chloral, Codeine 그리고 Quinidine 등은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Arsenic이나 Stry-

chnine 등 현재는 주로 독물로 인정되는 약물이 놀라울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신판인 「The Merck Manual」을 보더라도 특히 암 치료에는 아직도 많은 독물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The Merck Manual」 제1판에 대해 Harold J. Morowitz 박사는, "The Merk of Time", Hospital Practice, Dec., 1976, 제1판에서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 겨우 또는 전연 효과가 없는 치료법을 상당히 많이 열거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Diphtheria에서 75종류, 임질에서 96종류의 치료법을 인정하고, 그것들 전부가 유효하지 못하다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않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를 하는 편이 이익이라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또한 「잘 알지 못하는 병에는 보다 많은 치료법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의 치료에도 적합하다. 1899년에는 세균학, 유기화학, 그리고 생화학이 새로운 학과이며, 또 임상의가 그들 자신을 사람들의 병고로부터 해방을 사명으로 하는 고도로 훈련된 의학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Morowitz 박사는 우리들이 선인들을 웃는 것은 지나치게 경솔하다며 나무랬다.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이 세기 판의 정보는 거의 원시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The Merck Manual」 제1판의 발행경위를 전하는 직접적인 정보는 없으나, 서문에는 그 의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모든 일반의가 자주 경험할 필요성에 응하고 싶다. 기억은 믿을 수가 없다」. 해야 할 일이나 생각하는 일이 많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일상적인 진찰범위를 겨우 벗어난 징후에서 그 증례에 최적의 진료방법을 알고 싶을 때, 가능한 치료방법을 모두 정연하게 생각해 내서, 최적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다.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의 판단에 따라 정확한 처방을 하려면,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된다. 임상의 필요성에 응해 적격한 임상정보를 전한다는 「The Merck Manual」의 의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변하다.

「The Merck Manual」은 곧 호평을 받아 제2판(1901년)은 정보의 진보와 실시 임상의의 요구에 따라 출판되었다. 제2판에서는 각 증상명칭 아래에 짧은 정의가 기술되어 있어, 처음 Aspirin이 기술되었으나 이것은 Bayer사에 의한 판매로부터 겨우 2년 후의 일이었다.

계속되는 판에도 의학의 진보가 반영되었다. 제3판(1905년)에는 혈관수축약으로 Adre-naline이 처음 논의되었으며, 괴혈병(壞血病: Scurvy)은 부적절 또는 불충분한 식사에 의한 것으로 기술되었다. 전쟁 때문에 출판이 1923년까지 연기된 제5판은, 600p.에 이르렀다. 이 책은 Bedside 진단을 위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힌트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요(尿)검사를 위해 21p.를 할애하여 혈압측정(새진단기법)에 대한 논술과 혈압치의 표가 추가되었다. Arsphenamine과 Salvarsan이 매독치료법에 추가되는 한편, 본초(本草)의학적인 기술(記 述)은 지세를 감췄다.

제6판에는 본초에 기여한 개인명으로는 처음 일리노이대학 의학부치료학 교수이자 혈액은행의 창시자이기도한 Bernard Fantus 박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생물과학과 유기화학의 진보에 의해, 제6판은 1379p.나 되는 완전히 새로운 의학서가 되었다. 새 타이틀은 「치료법과 약물학의 머크 매뉴얼」(The Merck Manual of Therapeutics and Materia Madica)이 출판도어, 전판(前版)의 3배나 두터워졌으며 많은 질병을 망라하여 종래와 같이 알파벳순으로 각 질병의 정의와 병의 원인, 진단(임상증상과 징후와 더불어 임상검사소견을 포함), 그리고 다수의 처방을 포함한 치료법을 기재하였다. 내용의 일부-예를 들면, 여러 종류의 피부질환에 대한 Roentgen 치료를 권장하거나, 임신부는 여행을 하지 않

는 것이 좋다는 견해등은, 현재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언이 되었다. 그리고 이 판에는 자동차가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기술도 있으나, 당시의 도로상황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른 판단이었다. 한편에서 결핍성질환(예, Pellagra 각기: 脚氣)이 해설되고, 당뇨병은 췌장 Insulin분비의 결핍으로 인식되어 있다. 또, 의학적 진보 중 Acidosis, Shock, 정신병리학, 피하주사나 정맥주사에 의한 약물투여, 식물의 성분, 그리고 Vitamin에 관한 표 등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항생물질은 아직 없고 감염증이 주요한 사인이었다. 종양에 관한 정보도 놀랄 정도로 거의 없다. 위암, 백혈병 그리고 Hodgkin's병의 기술은 있으나 장 내용이나 장폐쇄에 관한 긴 기술 중에도, 장의 종양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다른 다수의 의학서에는 저자와 출판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나타나있으므로, The Merck Manual이 다른 책을 요약하여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제7판에는 M. R. Dinkelspie 박사(안과의)가 6판의 편집자였음이 명기되어 있다. Funtus 박사의 조력이 거듭 찬사를 받은 외에, 1436p.로 성장한 이 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분야의 지도적 전문가로부터 받은 지원과 조언이 인용되었다. 이 판에서도 종양의 기술은 빈약했고, 심근경색에 대한 언급도 없다. 환자는 협심증으로 사망하고 있었다. 새 Topic은 Allergy, 순환부전, 과립구 감소증(顆粒口減少症), X-선에 의한 장해 그리고 비만 등 이었다. 부종(浮腫)의 치료법으로 유기수은(有機水銀)이 제창되어, 부종의 병리발생에 있어서 체내의 Natrium 축적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악성빈혈의 내인자(內因子) 및 외인자의 논리가 설명되어, Physostigmine과 Pilocarpine이(관자놀이<顳顬>를 거머리<蛭>에게 빨아먹게 하는 치료와 더불어) 녹내장치료에 힘썼다. 일부의 Sulfonamide류는 이미 사용되었으나, 고혈압의 치료에 유효한 약물은 아직 없었다. Malaria 항목에서는 Quinine에 의한 치료비를 억제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이 판에서 처음 색인을 만들어 수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제8판 발행은 1950년까지 지연되었다. 의학의 공전(空轉)으로 다시 내용뿐 만아니라 형식이나 철학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 Manual이 요구되었다. 현대의 「Merck Manual」의 아버지라고 보는 Charles E. Lyght 박사가 편집을 계승하여 이 대개정판을 완성하였다. Title은 현재의 「진단과 치료의 Merck Manual」 (The Merck Manual of Diagnosis and Therapy)로 개정하고, 종래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했던 환자는 20개의 의학 전문분야별 구성으로 바뀌어(미국의학이 여하히 전문화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오래된 약물은 우수한 신약의 기술로 바뀌었다. 감염증의 치료에 Slufonamide류, Penicilline, Streptomycin, Dihydrostreptomycin, Chlortetracycline, Chloramphenicol이 있었다. 또, 관절염에 대한 Corticosteroid의 극적인 효과가 기록되었다. Diphtheria와 파상풍 Toxoid와 백일해 Vaccine이 Routine하게 소아의 면역에 이용되었으나, 풍진(風疹)의 Vaccine은 아직 없었다(이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큰 영향은 인식되어 있었으나).

Lyght 박사는 사전과 같은 라벨을 책의 각 절 사이에 삽입하여, 제9판은 4명의 편집위원을 계제하였다. Bedside의 처치를 취급한 장(chapter)에서는, 침대에 있는 환자의 목욕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자의 쾌적한 상황과 행복에 대한 강한 감정을 전했다. 환자의 머리가 헝클어져 짜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명한 서면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조언되었다. 의사의 왕진가방 내용에 관한 장에서는, 당시는 아직도 왕진이 관행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판부터 처음 본문을 제공하는 외부집필자가 참가하였으므로, 소수인의 의사로 구성된 편집자들은, 주요한 Text에서 자료를 모

아 요약하여 재구성해서, 비서에게 쓰도록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전문가들의 참가는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독자에게는 그들의 문장은 너무 길었으며 형식도 각자마다 달랐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바꾸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일관된 문장으로 하기위해서는, 많은 편집 작업을 필요로 했다」고, Lyght 박사는 평했다. 다행이 집필자의 대부분은 그의 편집에 의해 문장이「잘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집필자들은 작은 사례를 받아 익명으로 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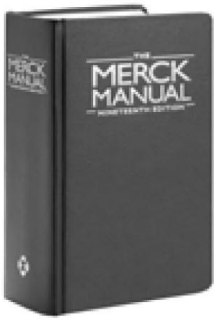
Light박사는 제11판(1966년)까지「Merck Manual」의 발전과 개정을 지휘하였다. 간결함을 요구하는 열의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Kangaroo의 주머니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부피가 커졌다. 제12판은 David Holvey 박사 감수 하에, 고문편집자로 John Talbott 박사(University of Buffalo,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내과의 주임교수였고, 미국의사회 잡지편집장)의 다대한 조력으로 출판되었다. Holvey 박사가 사고로 사망한 후, Robert Berkow 박사가 제13판의 편집자가 되었고, 재차 Talbott 박사의 조력을 얻어 출판되었다. 외부 집필자의 대부분은 미국 내의 인물로 그 수는 250명까지 증가하였다. 12명의 편집위원이 집필자를 선정하여 원고를 감수하고, 이 책의 출판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집필자명이 처음 계제되었다.

제13판(1977년)에서는 생리학, 면역학 및 약리학의 방대한 새 정보를, 한 책의 작은 Handbook이라는 한계 내에 수록하기 위해 다대한 노력을 필요로 했다. 새 절(節)이 추가됨에 따라 구절(旧節)은 증가되어, 이 책이 물리적으로 부피가 커졌다.

제12판과 비교하면 그 내용이 배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효소학, 분자생물학이나 세포생물학, 유전자공학, 진단법과 수술수기(手技) 등이 발전하여 연구단계에서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이 Manual의 크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집자들은 도전을 계속하였다.

그 이후의 판도 다른 변화가 있었다. 제16판은 수 종류의 CD-ROM 판으로 입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Internet상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어판의 발행도 또한 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어판과 스페인어판은 1950년대부터 이용할 수 있었으나, 제16판은 영어 이외에 14개 국어로 잉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합쳐서 제16판은 거의 200만 책이 판매되어,「Merck Manual」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종합적 의학교과서라고 우리들은 믿고 있다. 제17판의 각 국어판 번역과 전자판의 제작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 세기(世紀)의 판(版) 제17판(1999년)은 많은 사람들의 일치한 노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부편집장인 Mark H. Beers 박사와 2명의 상급 편집위원 Robert M. Bogin 박사 그리고 Andrew Fletcher 박사의 조력이 필요하였다. 또한 집행편집자인 Keryn Lane이 탁월한 편집자 팀과 스탭을 감독하였다. 제13판 이후의 모든 판과 같이 구판이 어떠한 호의적인 평가나 독자의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개정작업은 내부에서 구판분석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16판의 각 절(節)은 솔직한 비판을 귀감으로 삼기위해 제작에 전연 참여하지 않았던 외부의 전문가에게 원고가 송부되었다. 출판 후의 평가와 독자로부터의 편지가 분석되었다. 다음은 편집위원이 모여 평가와 비판을 비교하여 제17판을 계획하였다. 또한 전문분야의 조언을 얻기 위해 특별고문으로 부터도 협력을 얻었다. 탁월한 적성과 경험과 지식을 가진 290명의 집필자를 모았다. 그들의 원고는 귀중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감소하는 일 없으며, 아름다운 표현일지라도 불필요한 말은 할애하는 방침 하에, 스탭들의 손으로 정성들여 편집되었다. 각 원고는 편집위원 또는 고문이 감수하여, 많은 경우 다시 특별한 감수자의 의견도 요구되



Helping healthcare professionals achieve the best care possible for their patients.

The Merck Manual is one of the world's most trusted medical references and the 19th Edition (2011) is more comprehensive than ever before! First published in 1899, The Manual is one of the most compact, concise and complete medical reference books for doctors, medical students and health care professionals. It contains nearly 4,000 pages written by more than 300 independent contributors -- all experts in their fields. It addresses the mechanism and cause, symptoms, diagnosis, treatment and prevention of over 2000 diseases and disorders. It's a must-have for any medical library, and an excellent solution for your medical information needs. The Merck Manual 19th Edition makes it easy to find the right information quickly.

었다. 약물과 용량에 관한 모든 기술은, 약학 분야의 외부고문에 의해 감수되었다. 감수의 목표는 각 주제를 정확히 또한 적절히 커버하여, 간결한 해설을 확실히 하는데 있었다. 집필진은 원고를 다시 쓰고 수정하여 투고하였다. 거의 모든 원고가 적어도 6회는 개정되며, 15회나 20회에 거쳐 개정되는 경우가 드문 일은 아니었다. 이「Merck Manual」만큼 많은 감수와 수정을 하는 의학교과서는 또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제18판은 2006년도에 Elsevier에서 출판되었고, 제19판은 2011년도에 Merck사에서 출판되었다(총 3754p.에 이르는 대용량이다).

참고문헌

1) Harold J. Morowitz, The Merck Time, Hospital practice, Dec., 1976.
2) Banyuseiyaku. www.banyu.co.jp